

#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조명기(부산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1) 대타적 낙원의 변화와 극복 양상 |
| 2. 자생적·절대적 낙원의 탐색과 효과    | 2) 정체성 은폐와 알레고리      |
| 1) 위치 역전과 환상·광기의 ‘대상 a’  | 4. 공간의 상호 규정과 유대의식   |
| 2) 자생적 낙원의 효과            | 1) 낙원의식의 포기와 히스테리 담론 |
| 3. 대타적·상대적 낙원의 조건과 변화 양상 | 2) 로컬의 상호주체적 유대의식    |
|                          | 5. 결론                |

## 1. 서론

로컬리티 연구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탈중심적 가치를 지향하고 중심/주변의 고착화된 관계를 가로질러 소통, 공생의 장으로서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해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sup>1)</sup>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의 폭은 광범위하다 할 것인데, 이는 로컬리티 연구가 당위적인 선언에 머물 위험성을 내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방적인 피해의식이나 둔감한 문제의식 못지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성찰과 세밀한 탐색의 결여일 것이다. 이 글은, 선언적이고 실천적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학국사업 <로컬리티의 인문학> 아젠다, 2007.11 참조.

성격의 첫 문장이 구체적인 몸을 갖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를, 고정되고 응고된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물들이 특정 공간 내에서 중첩적이고 유동적으로 관계맺는 양상의 현현체로 본다. 왜냐하면 이 글은 로컬리티의 다양한 측면 중, 로컬<sup>2)</sup>이 내장하고 있는 기억과 상상력이 로컬 외부의 욕망과 중층적으로 충돌한 결과가 특정 공간에서 발현되는 양상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창출해내는 로컬의 내재적 다양성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로컬은 태생적으로, 개개의 신체가 거주하고 활동하는 선형적인 공간, 상위공간이나 타 로컬과 관계지어지기 이전부터(때로는 무관하게) 개인의 신체와 삶을 조건짓는 공간이다. 분명 로컬리티는 분명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로컬리티는 공시적인 조건 즉 현재의 물질적·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가치·당위적 가치가 ‘지금 여기’의 사고와 행위의 방향을 규제하기도 한다. ‘지금 여기’의 사고와 행위가 그 자체로서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규정될수록, 미래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내는 힘들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이 되고 로컬리티는 고정되어 유전되는 응고물로 간주된다.

로컬리티에 대한 탐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이 로컬의 낙원의식<sup>4)</sup>에

2) 이 글에서 주목하는 공간 단위는 국가단위의 하부에 존재하는 국지적 영역으로 국가의 중심성에 대비되는 주변성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에 가깝지만, 그 자체로 장소성과 정체성, 다양성이 발현되는 장(場)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이라는 수평적 개념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 또는 지역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 때 야기되는 불필요한 선입견과 학문분야별 해석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로컬(local) 또는 로컬리티(loc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8. 10, 71쪽 참조)

3)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8. 10, 24쪽 참조.

4) 낙원, 천년왕국, 유토피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낙원’을 이 세 개념을 아우르는 범박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낙원, 천년왕국, 유토피아는 시공간적 위치와 방향성, 그리고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사이의 연결 매체 등에 있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컬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 힘들은 현재의 당면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관리하고 기획함으로써 현재를 추동하려는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낙원의식은 미래의 기획을 통한 현재의 관리 전략 중 하나로서, 로컬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투쟁의 장이다. 로컬의 낙원의식은, 로컬이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정체성의 일면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외부공간과의 관계에서 로컬이 타자로만 위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로컬의 낙원의식은 로컬의 미래 형상을 견인하고 현재를 규정하려는 여러 힘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인식적 표상공간인 셈이다. 로컬은 충돌의 결과가 일차적·직접적으로 각인되는 물리적 공간이다. 특정 낙원을 지향한다는 것은, 특정 낙원을 제공한 그 힘을 ‘지금 여기’의 로컬을 설명하고 기획하는 기제로 인정하고 공인함을 의미한다.

비현실적인 낙원의식이, 지극히 현실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sup>5)</sup> 단순한 배경적 역할만이 아닌 인물의 의식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현실기제로 작동한다<sup>6)</sup>는 인식을 로컬에 대입할 때, “그 섬(이어도-인용자)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거꾸로 간섭해 왔고, 또 모습지어 왔는가를 보려고 노력했다”<sup>7)</sup>는 이청준의 의도를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섬”이 간섭하는 “우리”와 공간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소설은, 낙원이 로컬의 현재를 제어하는 방식, 즉 로컬에서 낙원의식이 담당하는 기능과 효과, 낙원의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컬 내외 시선들의 다양한 충돌 양상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를 지역 정체성과 동의어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로컬과 상위 단위에 의해 재현되고 규정된 관계적 속성, 그리고 상상력·낙원의식에 의해 기획된 미래완료형 관계에 대한 기대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유동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11~29쪽 참조) 이 글에선 로컬리티의 성격 규정력이라는 문제에만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5) 김윤식,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82쪽 참조.

6) 김인경,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26, 한성어문학회, 2007, 331쪽 참조.

7) 이청준, 「작가 노트 <이어도>의 실제와 허구의 의미」,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 8 『이어도』, 도서출판 열림원, 1998, 125쪽.

산물이라고 본다.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낙원의식에 집중하는 이 글은 낙원의식의 생성을 세 가지 요인에서 찾는 데서 출발한다. 로컬 내부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낙원의식·로컬리티, 로컬 외부 특히 그 로컬을 일부로 삼는 상위 단위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낙원의식·로컬리티, 로컬과 상위 단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낙원의식·로컬리티가 그것이다. 이 세 성격의 낙원의식·로컬리티를 이창준의 작품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위 세 소설을 텍스트로 삼아, 낙원의식을 둘러싼 다양한 로컬리티의 구체적인 성격과 이에 대한 작가의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생적·절대적 낙원의 탐색과 효과

### 1) 위치 역전과 환상·광기의 '대상 a'

물과 섬의 공간 분할을 배경으로 하는 『이어도』와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은 특별한 의도를 지닌 외부인이 섬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도,의 선우현은 전남석 기자의 실종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며, 『당신들의 천국』의 조백현은 낙원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안고 소록도를 방문한다. 정훈장교인 선우현과 군인이자 원장인 조백현은 섬이 지니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섬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주체이자 대학의 담론·계몽의 담론<sup>8)</sup>의 전문가들이다. 『신화를 삼킨 섬』의 유정임과 정요선은 비공식 정부조직(큰당집)이 시작한 ‘역사 씻기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다. “적당히 밝혀서 다스리는 쪽의 생색을 내보이되, 부질없는 부풀림은 막”<sup>9)</sup>으려는 억압적 관용<sup>10)</sup>인 ‘역사 씻기기’는

8) 김상환, 홍준기, 『라강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0, 545~546쪽 참조.

9) 이창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2003, 110쪽. 이하 권수와 인용면수만 기입.

10) 마르쿠제 하버트, 차인석 역, 『일차원적 인간』, 삼성출판사, 1982 참조.

삼별초항쟁, 4·3항쟁과 같은 집단 희생의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sup>11)</sup>을 지녔는데, 무속인인 유정임 등이 제주도에서 행하려는 곳은 그 목적의 수행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결핍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도』의 선우현은 “사고의 전말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진”<sup>12)</sup>하고자 하지만, “사고 원인이 나 경위에 석연찮은 점이 있”(54쪽)다고 느끼면서 정보의 결핍을 자인한다. 사실과 질서에 기반한 아버지의 언어·주인의 담론이 사실상 결핍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면서, “천남석의 죽음은 이어도에 대한 그의 절망적인 이야기에 열쇠가 있”(73쪽)을 거라고 추측하고 섬 내부인인 양주호에게서 “분명한 해답”(77쪽)을 구하고자 한다. 『당신들의 천국』의 조백현은 절망과 배반의 섬인 소록도를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절망과 배반의 결과인 원생 탈출과 자살의 원인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상욱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신화를 삼킨 섬』의 정요선은 “목은 망자들 넋굿을 청하러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1권, 105쪽)던 물과는 다른 대응방식, 즉 역사 씻기기에 대한 “섬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1권, 113쪽)에 당혹해 하면서 “섬사람들의 속내를 짚어낼 수 없어”(1권, 33쪽) 답답해한다.

세 텍스트는, 질서와 권력의 행위자, 설명과 건설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물·지배자의 의지를 결과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섬 외부인들이 물과 단절된 섬에 도착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내부인들은 외부인의 결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충족시켜 줄 “분명한 해답”을 지닌 존재들로 전환한다. 이러한 위치 역전은, 섬 외부의 권위적 담론은 결여되고 분열된 상태에 있다는 것, 설명하거나 구축할 수 없는 그 무엇 혹은 사후성의 원리에 의해 잃어버린 대상으로 구성된 대상  $a$ 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sup>13)</sup> 이에 반해 섬은 이 대상  $a$ 를 지닌 존재로 기대된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14)</sup>

11)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132쪽 참조.

12) 이청준, 『이어도』,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 8 『이어도』, 도서출판 열림원, 1998, 59쪽. 이하 인용면수만 기입.

13)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251쪽 참조.

14) 이어도는 가상의 섬이면서 제주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천남석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어도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이는 결여의 은폐를 통해

세 텍스트는 섬이 지닌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  $a$ 를 섬 외부인이 탐색하는 과정을 기본 서사로 한다.<sup>15)</sup> 이 탐색 과정은 섬 외부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회의적 인식과 일탈을 포함한다. “이어도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이 곳 섬 내부인을 이해하지 못”(79쪽)하는 선우현이 이어도와 이어도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가시적 현실을 모두 포기”(121쪽)해야 하기에, 선우현은 “자기도 사실을 포기할 수 있겠냐”(121쪽)고 양주호에게 그 가능성을 질문한다. 대상  $a$ 는 물의 질서인 사실의 권위를 포기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도」가 대상  $a$ 에 대한 일시적 체험을 보여준다면, 『당신들의 천국』은 대상  $a$ 에 도달하려는 지난한 노력을 보여준다. 원생들의 탈출과 자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무지의 상태에 있던 조백현은 이상욱과 황장로의 요구를 주동적인 자세로 실천해갈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두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 “섬의 깊은 현실”<sup>16)</sup> 즉 대상  $a$ 에 도달하려는 과정은 물의 질서와 권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백현의 신분이 군인·원장 → 원장 → 일반 개인으로 변하는 것 또한 조백현에게 작용하는 물의 질서·권위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화를 삼킨 섬』의 외부인은 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섬에서도 집단 희생의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지만, 섬은 외부인의 의도를 외면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sup>17)</sup> 결국, 규범과 질서, 설명의 주체로 등장했던 섬 외부인은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면서, 섬 내부인의 안내와 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일탈의 과정을 통해 대상  $a$ 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sup>18)</sup>

---

욕망을 지속시키는 대상  $a$ 를 떠올리게 한다. 대상  $a$ 에 대해서는 위의 책, 252쪽 참조;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201쪽 참조.

15) 대상  $a$ 에 대한 탐색이 강조된 데는 이청준이 즐겨 사용하는 추리소설적 구성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16) 이청준, 이청준 문학전집 장편소설 4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383쪽. 이하 인용면수만 기입.

17) 섬사람인 금옥은 섬무당의 딸이라는 운명을 지우기 위해 섬을 탈출하고자 한다. “깔끔한 표준말”(1권, 32쪽)은 금옥이 섬 탈출을 위한 준비를 완비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금옥의 어머니인 변심방도 또 다른 섬심방인 추심방도 타인의 섬 탈출 의지에 동조하거나 묵인한다. 그러나 이같은 바람은 물에 대한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나가 제 집안내림을 지우려는 집념”(1쪽, 78쪽)의 산물이다.

대상 *a* 체험이나 도달 노력의 과정은 전이를 통해 진행된다. 상징계의 질서에 예측되어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인간<sup>19)</sup>인 선우현의 전이 경험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그는 뱃사람들만 단골로 다니는 술집 <이어도>에서 “진짜 저승의 섬에 들어서는 것 같은 이상한 요기를 느끼”(75쪽)며, 천남석 여자의 집을 찾았을 때 “자신도 이어도의 비밀스런 힘에 홀려든 것 같은 야릇한 기분”(95쪽)이 된다. 급기야는 “질식할 것 같은” “환각을 쫓기 위해”(105쪽) “자신도 분명치 않은” “허튼 소리”를 뱉으면서 여자를 학대한다. 이어도가 사람을 홀리게 한다는 천남석의 과거 추억에서 선우현은 “몸이 저려오는 감동”(102쪽)을 느끼기도 하고, 여자의 “기괴한 비밀의 섬”(104쪽)을 보고 있으면서 사고나던 날 밤바다를 향해 무섭도록 노려보던 천남석의 눈초리와 양주호의 큰 웃음소리를 느끼기도 한다.<sup>20)</sup> 이러한 전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상 *a*의 특징인 환상이며, 환상의 내용은 제주인의 운명 즉 이어도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 내용, 이어도가 제주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이다.<sup>21)</sup> 『당신들의 천국』의 조백현은 군인·원장 → 원장 → 일반 개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섬 내부인과의 차이를 탈각해가며, 내부인의 공동된 경험인 추방의 경험까지 공유한다.<sup>22)</sup> 또한, 이상옥에 의해 끈질기게 상기되는 주정수 원장 시절의 기억(동상에 대한 경계)을 공유하면서 이상옥 못지않게 자신의 동상을 경계한다. 이런 전이의 과정을 통해 그가 결국 획득하는 것은 광기이다. 이정태는 원장에게서

18) 『신화를 삼킨 섬』에서 제주에 들어온 또다른 외부인으로는 일본 국적의 고종민이 있다. 그는 제주 출신인 아버지가 일본으로 귀화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제주 방문을 “깊은 베일에 싸여온 아버지의 젊은 고국 시절과 관련해 이 곳에서 새삼 떠오르게 된 수수께끼와 그 해답의 불가피한 탐색과정”(1권, 71쪽)으로 여긴다.

19) 박미란, 「이어도, 탈존하는 실제의 섬-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377쪽.

20) 더구나, 천남석이 군대의 함선에 승선하여 이어도의 부재 결정 과정을 지켜보다가 자살을 통해 이어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은, 선우현이 제주도에 올라 전이를 통해 환상을 체험하다가 섬을 떠나는 과정과 중첩되고 있다.

21) 천남석의 유년은 어머니의 노래 즉 이어도 노래로 가득 차 있으며, 여자를 키운 건 사람이 아니라 제주 그 자체이다. 양주호는 이어도를 “제주 어부들의 핏속에 있는 다음 딸의 울음의 섬”(80쪽)이 된다고 설명한다.

22) 조백현은 절강제를 본 후 섬을 떠나려고 하지만, 내부인은 그 전에 그를 추방한다.

“무서운 광기”(369쪽)를 느끼면서 “섬사람들 전체가 광인”(385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두 텍스트에서 외부인이 전이를 통해 경험하는 대상  $a$ 는 물의 질서에서 배제되거나 등록되지 못한 영역 그러나 섬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대상  $a$ 를 경험하는 방식인 환상과 광기는 외부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한 명명방식이다.

반면, 『신화를 삼킨 섬』의 외부인은 지배자의 의지를 수행하는 존재인 동시에 섬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이미 확보한 인물이거나 확보해가는 인물이다. 이는 텍스트의 서두와 말미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무병(신병)을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는데, 텍스트 서두에선 섬에 막 도착한 유정남이 말미에선 금옥이 심한 무병을 앓는다. “억울한 섬귀신들을 온통 가 셋길 각오로 건너온”(1권, 26쪽) 유정남은 섬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전에 무병을 통해 섬사람들의 고통을 공유하게 되며, 금옥은 무병을 통해 “희생자들과 그 삶을 끊임없이 씻겨내는 사람”(2권, 182쪽)이 되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두 무병은 “정체 모를 신열기”(1권, 26쪽), “환청”(2권, 84쪽)과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2권, 87쪽)로 연결되어 있다. 이 텍스트의 대상  $a$ 는 섬의 정체성을 명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필수 영역인 동시에 외부의 어떤 계층과 이미 공유하고 있는 흔적에 해당한다. 광기·환상을 각각 주체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통해 흔적의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 2) 자생적 낙원의 효과

전이를 통해 경험한 환상과 광기의 대상  $a$ 는 몇 가지 뚜렷한 효과를 가진다. 첫째는, 대상  $a$ 가 외부인의 요구에 의한 내부인의 고백의 형태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이다. 탐색의 임무를 띤 외부인은 내부인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대상  $a$ 에 대한 끝없는 고백을 요구한다. 낮과 밤을 다르게 살고 있는 양주호<sup>23)</sup>는 선우현을 천남석의 여자에게로 안내함으로써 대상  $a$ 에 대해 고백한다.<sup>24)</sup> 『당신들의 천국』 1부에선

23) 이상우는, 선우현은 사실의 인물로, 양주호는 사실·허구의 인물로, 천남석과 이어도 여자는 허구의 인물로 각각 설명한다.(이상우,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189쪽 참조)

24) 박미란은 리캉의 논의를 원용하여, 이어도가 대상  $a$ 라고 규정하면서 이어도는 상징계의



미감아 출신의 이상욱이 갖 부임한 조백현을 안내하며, 조백현의 이해 정도가 깊어진 2부에선 원생의 지도자격인 황장로가 안내인 역할을 주로 맡는다. 3부에선 일반 개인으로 섬에 돌아온 조백현이 물의 신문사 기자 이상태를 안내한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금옥은 섬사람들이 ‘역사 씻기기’에 무관심한 이유가 “이도저도 다 있고 싶은”(1권, 129쪽)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과장은 고종민에게 ‘역사 씻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민이 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한다. 상대적 내부인이 외부인을 대상  $a$ 로 안내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외부인들은 내부인의 고백과 인내를 통해 대상  $a$ 를 탐색하고 이해하려 한다. 대상  $a$ 는 외부에 의해 발견되고 해석되는 어떤 것, 외부의 요구에 의한 내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것, 결국 외부인들의 끊임없는 탐색과 이해·관리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대상  $a$ 는 환상이나 광기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상  $a$ 는 내부인의 구별짓기와 역타자화·폐쇄성의 기제로도 기능한다. 선우현을 환상의 공간으로 이끌었던 양주호는 “이어도가 없이는 이 섬에선 삶을 계속할 수가 없다”(117쪽)면서 천남석은 “어쩔 수 없는 이 제주도 섬사람이었”(118쪽)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선우현에게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포기시키기는 일”(121쪽)이었다고 말한다. 선우현은 자신도 ‘사실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묻지만 양주호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상  $a$ 는 내부인들을 “너무도 정교”한 “예감”으로 이끌지만, 외부인에게 “엄청난 비약”(85쪽), “심한 비약”(118쪽)의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양주호는 선우현에게 대상  $a$ 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설명하지 못한 그 무엇이 남는다. 내부인이 라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외부인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대상  $a$ 라면, 이때의 대상  $a$ 는 신념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섬 외부인과 내부인의 구별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양주호는 부제를 통해 증명되는 대상  $a$ 를 근거로 섬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고 있는 셈이다.<sup>25)</sup> 천남석이

걸여를 의미하지만 이어도가 없으면 상징계는 존속할 수 없고 상징계 없이는 이어도 역시 파악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박미란, 앞의 논문, 385쪽 참조)

25) 이어도로 표상되는 허상을 상징함으로써 섬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견고하게 만든

자신의 실종을 통해 이어도를 증명했듯, 대상 *a*는 결여와 부재, 지연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다.<sup>26)</sup> 그러므로 선우현의 환상적 체험은 대상 *a*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대상 *a*가 내부인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목도의 과정이며, 이는 섬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별에 대한 자각을 위한 과정이 된다. 결국, 전이를 통한 체험의 과정은 섬 외부인 추방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양주호의 안내는 추방을 목적으로 한 역타자화의 행위가 된다.

대상 *a*가 운명의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당신들의 천국』도 마찬가지다. 선우현과 달리 조백현은 대상 *a*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지만, “공동 운명”(420쪽)이라는 결정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섬 내부인과 같은 운명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420쪽, 425쪽)은 섬 내부인과 조백현 모두에게 잠재해 있다. 조백현은 추방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 이후 “공동 운명”을 위해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섬에 다시 들어오지만, “섬의 깊은 현실을 스스로 말하”(383쪽)는 “섬의 참모습”(385쪽)을 이상태에게 보여줌으로써 ‘공동 운명’의 불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준다.

이번에는 아예 일그러진 입 하나를 제외한 모든 감각 기관을 상실한 환자들이었다. 네 팔다리와, 눈, 코, 귀가 하나도 성해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코와 귀와 눈들이 흔적도 없이 짓물러버린, 흡사 옷에 싸인 살덩이 한가지의 모습들이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입을 열어도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괴상스런 소리들을 내고 있었다.(384쪽)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묘사는 이 부분이 유일하다. 이 장면은 “그 동안 튀가 눈앞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겨내면서 “형언하기 어려운 이상스런 감동”(385쪽)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공동 운명의 불가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생’으로 집약되는 섬 내부인의 공동체의식은 물로부터의 추방이란 경험과 나병환자라는 동질감에서 비롯된다. 조백현은 나병환자라는 동질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 운명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다.(홍용기, 「이청준 소설의 공간성 연구-‘섬’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5, 12쪽)

26) Sean Homer,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9, 57쪽 참조.

『신화를 삼킨 섬』 또한 대상 *a*가 섬을 공동 운명체로 묶음으로써 섬과 물을 구별짓고 역타자화하는 면모를 다소간 보여준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인물은 섬 심방들이다. 그들은 물에서 기획되고 성공한 ‘역사 씻기기’를 “우리하곤 상관없는 일”(1권, 32쪽)로 반복해서 규정한다. “섬사람들은 무당이고 누구 가릴 것 없이 만나느니 외면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적의의 눈길”(2권, 42쪽)이다.

셋째,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도』는 이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처리하는데, 전혀 훼손되지 않은 천남석의 시신이 제주에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어도라는 환상의 영역은 결국 현실 너머에 있지 않고 현실 ‘속’에 있으며,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현실 자체라는 깨달음<sup>27)</sup>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당신들의 천국』 또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 앞뒤로 유사한 의미의 문장들을 배치하고 있다. “후손의 이름을 빌린 미래를 구실로 하여 현재가 다스려지고 있다”(382쪽)는 반성은 환자의 참모습을 목격한 다음 순간에 “미래라는 것과는 거의 상관을 지을 수 없는 섬의 모습”(385쪽)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한다. 『신화를 삼킨 섬』의 에필로그 또한, 섬사람들은 미숙한 아기와 장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고정된 용마와 “물로 돌아갈 날”(2권, 97쪽)의 시간적 간격을 희망이란 이름으로 배우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미래가 희망이란 이름으로 현재에 개입하여 구획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다. 이 저항은, 낙원을 미래와 저곳으로 지정해주는 지금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27) 백지은,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식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3, 143~144쪽.

### 3. 대타적 · 상대적 낙원의 조건과 변화 양상

#### 1) 대타적 낙원의 변화와 극복 양상

「이어도」가 자생적 낙원과 그 영향력의 크기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들의 천국』은 사회적 제 관계에 의해 구축된 대타적 · 상대적 낙원들의 갈등 과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소록도는 훼손된 신체가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사회 · 문화적 차원에서 재해석된 후 공간적으로 재배치(추방 · 단절)된 결과의 집약체이다. 이어도가 제주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된 단일한 낙원 공간이라면, 소록도가 꿈꾸는 낙원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여러 목소리가 중첩된 낙원이다. 조백현은 소록도를 유령의 섬으로 규정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을 낙원의 정체로 설명하며, 이상옥은 자유의 공간을, 황장로는 사랑의 공간을 낙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설명한다. 물으로부터 추방되고 물과 단절된 소록도는 하나의 낙원으로 집약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인과 내부인이 꿈꾸는 낙원이 다른 공간이며 내부인들이 꿈꾸는 낙원의 성격 또한 상이한 공간이다.

등장인물들의 낙원이 각각 다른 이유는 그들 각자가 반성하고 경계하는 과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상옥이 반성하고 경계하는 인물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순구다. 이상옥은 “섬 전체가 잉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 은밀히 길러낸” “두려운 희망”(141쪽)이었지만, 이순구는 불안 때문에 “당국의 충직스런 손발”(143쪽)이 되는 배신을 감행하다가 살해당한다. 이상옥 자체가 희망과 배반을 동시에 의미하는 낙원인 셈인데, 그는 아버지 이순구를 반면교사로 삼아 배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황장로는 물으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배척을 원망과 질시의 복수로 되돌려주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원생들의 본질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낙원을 탐색(사랑에 대한 인식)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동상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과거 주정수 원장의 잘못을 반성하고 견제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인물은 조백현 자신이다.<sup>28)</sup> 조백현의 방식과 주정수의 방식이 유사하면 할수록

28) 주정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조백현의 결심은, 간척사업 선서식에서 “나에게서

동상을 원하는 것은 원장의 공통적인 결함으로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동상은 원장들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증명·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그들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인 셈이다.

반성하고 경계해야 할 과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소록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와 이 차이의 극복 양상과 연결된다. 신체적 문제를 사회·문화적 차별, 공간적 단절의 근거로 치환한 결과인 소록도는, 훼손된 신체와 사회적 소수자·타자라는 두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은 증상의 가시성을 부각하여 섬 내부인을 환자로 호명하는데, 이는 타자화(추방과 단절)라는 폭력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더구나 소록도가 “꿈처럼 아름다운”(24쪽) 낙원으로 인식될 때, 물의 사회적 폭력은 철저히 은폐되는 동시에 물은 추방과 단절에 대한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소록도가 가시적인 낙원이 될수록 추방·단절 행위라는 도덕적 흠결은 탈각되며 물은 소록도라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조백헌이 소록도에 대해 갖고 있었던 첫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sup>29)</sup> 반면, 이상욱과 황장로는 소록도를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이해한다. 그들은 물이 은폐하고자 하는 사회적 소수자·타자의 모습을 부각하려 한다. 신체적 특징을 타자화의 기제로 이용하는 물의 전략에 반발하면서, 이것이 종결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낙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의 기대를 대변하는 조백헌의 관심은 이상욱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타자화 결과에 대한 인정과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수정되는데, 이를 시작으로 소록도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낙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기극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백헌은 이상욱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자신의 낙원을 견제·수정하며, 황장로는 조백헌을 통해 사랑이라는 새로운 낙원을 꿈꾸게 되며, 이상욱은 조백헌에게 이상욱 자기 낙원의 한계와 실패 원인에 대해 질문한다. 이처럼 그들의 낙원은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 이 상호 영향관계는 물의 전략에 대한 저항의

---

만약 배반이 행해질 때 나의 목숨은 물론 당신들의 것입니다”(190쪽)라는 약속을 성서와 권총에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9) “이 섬이야말로 이제 그 저주스럽고 절망스런 오욕의 세월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들도 없는 낙토요 자랑스런 고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66~67쪽)

과정, 타자화를 학습한 섬 내부인의 자기극복 과정을 내포한다.

또한 이 과정은, 물의 타자화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섬의 대응 방식이 일정 정도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이상욱의 자유는 물의 공간 구획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이다. 그는 탈출을 통해 공간 구획을 붕괴시키려 하는데, 황장로가 이상욱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장로는 이상욱의 낙원을 물의 타자화 방식을 모방한 싸움의 낙원으로 규정한다. 그가 제시한 사랑은 타자화 방식 자체에 대한 극복의 방법일 터이지만, 그 또한 운명의 차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며 조백현을 추방한다. 개인 신분으로 조백현이 소록도에 돌아온 것은 황장로의 한계인 운명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sup>30)</sup>

## 2) 정체성 은폐와 알레고리

운명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정체성 은폐와 상징 조작을 통해 진행된다. 조백현은, 물과 섬의 운명의 차이를 윤해원과 서미연의 결혼이라는 결속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원생인 윤해원과 건강인인 서미연의 결혼은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절강제의 재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신희집도 직원지대와 원사지대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가 부여한 상징은 정체성의 은폐와 조작에 기초해 있다. 서미연은 건강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감아 출신이며, 윤해원은 원생이지만 병을 얻기를 갈구했던 건강인 출신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기 모멸과 질투를 벗고, 자신의 병력을 잊고 건강인 여자를 떳떳하게 차지라고 사노라는 당연하고 인간적인 긍지를 지니게 해주고 싶”(328쪽)다는 이유로 서미연의 출신배경은 은폐된다. 이는 이상욱의 섬탈출을 연상시키는데, 그의 탈출이 내부인들에게 큰 충격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건강인으로서 섬을 탈출했다는 데 있다. 이순구의

30) 등장인물들의 낙원은 상호 영향 관계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낙원의 속성 중 하나인 실현의 아포리아를 실증하기도 한다. 블로흐는 유토피아는 바람직하고 진정한 목표로 고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정되지 않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다고 하면서 유토피아의 속성을 ‘실현의 아포리아’라고 설명한다.

아들로 미감이 출신인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섬을 탈출함으로써, “건강한 육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섬을 생각할 리 없고, 원장도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그 이상스럽게 체념스런 반발기”(323쪽)를 내부인들에게 불어넣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인에 대한 윤희원의 질투를 부추겨 서미연과의 사이에 “심각한 파괴 작용”(325쪽)을 한다. 그 목적은 정반대라도, 정체성의 은폐와 상징의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낙원을 가상적으로 성취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조백헌과 이상옥은 유사하다.

조백헌과 이상옥이 정체성 은폐와 상징 조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경계인이라는 데 있다. 물사람들이 “원장님은 도대체 의삽니까, 사회 사업갑니까?”라고 물어오자, 조백헌은 그 문제는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의문 속에서 갈등을 계속해오던 물음”(202쪽)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물사람은 원생들의 배반을 경고하면서 조백헌에게 떠날 것을 충고한다. 이는 조백헌의 현 위치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규정행위다. 이상옥은, 섬 내부인에게는 건강인으로 인식되지만, “육지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으로 자신을 섞여들어 보려” 해도 “섞일 수가 없”(393쪽)어 “섬에 돌아가야 할 숙명”(394쪽)의 인물이다. 대상  $\alpha$ 를 탐색하는 외부인인 조백헌, 그리고 원생과 건강인의 존재 조건을 동시에 지닌<sup>31)</sup> 이상옥은 섬과 물의 경계에 있는 인물인 셈이다.

반면, 섬 내부인들은 호명되는 수동적 존재·침묵의 존재이다. 조백헌의 낙원 약속과 건의함 설치와 오마도 간척사업 설명에도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침묵하는 섬 내부인을 대변하는 인물은 이상옥과 황장로도. 이상옥은 현재의 침묵은 과거와의 소통,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과 경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는, 자유라는 결론을 유도해내는 이 해석에 기초해 조백헌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장로도 내부인의 침묵을 언어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환자로서의 황장로는 한번도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들의 낙원을 고민하는 인물로 조백헌과 대립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상옥과 황장로는 원생들의 침묵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존재,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때로는 비판하고 동조하면서 조백헌과 맞서는 존재가 된다. 결국 원생들은, 물사람들이

31) 장수이, 「한국 관념소설의 계보」, 『1960년대 문학연구』, 예화, 1993, 204쪽 참조.

조백헌의 위치를 위협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된 타자, 이상욱 혹은 황장로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해석되고 재배치된 타자, 추상화된 해석의 대상일 뿐이다. 경계인(이상욱과 조백헌)의 정체성 은폐와 상징 조작은 이 침묵하는 추상화된 타자에 근거하고 있다.<sup>32)</sup>

섬 내부인의 침묵과 추상화는 초점화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의 탈맥락화를 유발한다. 주요 등장인물들을 섬 내부인에서 외부인의 순서로 나열해보면, ‘원생들-황장로-윤해원-이상욱(서미연)-조백헌-이상태-물사람들’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초점화자는 이상욱(1부) → 조백헌(2부) → 이상태(3부)로 변화한다. 이 세 인물은 크게 보아 경계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초점화자는 섬 내부에서 외부로 즉 대상  $a$ 에 가까운 인물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초점화자가 독자들의 시선을 제한한다고 할 때, 독자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섬 내부에서 외부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원생의 추상화와 초점화자의 외부 이동은 진정한 낙원(진정한 대응 방식)에 대한 치열한 탐색의 과정과 괴리를 보인다. 이 괴리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묘사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때 묘사되는 환자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탈맥락화된 존재들이다. “저토록 말이 서투른 저들의 기도를 우리들 인간들은 들을 수가 없어도 하느님만은 누구보다 분명히 그것을 알아들으”(384쪽)실 것이라는 조백헌의 설명은, 타자화되고 단절된 공간에 재배치되기 이전의 환자, 사회·문화적으로 재해석되기 이전의 환자로 이들을 되돌려 놓는다. 초점화자인 이정태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 있을 수가 있다니. 인간의 삶이 저기서도 기도를 하고 감사를 지낼 수 있다니”(385쪽)하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낙원의 원천인 자기반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어도」의 태생적 낙원을 사회적 맥락 안으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했던 『당신들의 천국』은 타자화의 폭력을 삭제한 채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으로 초극해버린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한계와 이를 넘어서는 삶에 대한 감사는,

32) 경계인이 섬사람의 침묵을 해석한 후 외부인에게 설명하기는 이어도 또한 마찬가지다. 낮과 밤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는 양주호는 천남석 여자의 사투리 이어도 노래를 선우현에게 표준어로 통역한다. 선우현에게 있어 사투리는 언어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천남석 여자의 “답답한 침묵”(105쪽)은 양주호의 장황한 설명에 의해 재해석된다.



소록도라는 구체적인 로컬마저 추상화되는 근거의 일부를 담당한다. 많은 연구물들은 소록도를 한국 사회 전체를 환유하는 알레고리 공간으로 이해한다.<sup>33)</sup> 이러한 알레고리적 독법은 충분한 설득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소록도의 다양한 성격과 요소 중에서 보편적인 생활공간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 부적합하거나 장애가 되는 성격·요소를 제거하고 은폐하는 과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묘사가 텍스트 말미에서 삶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면서 감동적인 장면으로 처리된 것은 “절실한 섬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일 테지만, 섬의 상대적 낙원을 배태한 사회문화적 관계망, 물의 폭력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록도의 추상화와 알레고리는 독자의 위치를 물의 사람들에서 섬사람들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기도 한다. 즉, 타자화의 주체들·대행자들이 주변인·소수자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타자화의 폭력을 성찰하고 자기반성해야 하는 불편한 임무는 제거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주체들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거나 관념적인 사랑을 외치는 위치로 전환된다. 더구나, 구체적 장소로서의 각 로컬이 지닌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4. 공간의 상호 규정과 유대의식

### 1) 낙원의식의 포기와 히스테리 담론

「이어도」나 『당신들의 천국』과는 달리, 1980년 ‘서울의 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신화를 삼킨 섬』은 더 이상 낙원을 탐색하지 않는다.

김통정을 부인하고 김방경을 만드는 선택적 갈등이 아니라, 김방경 역시도 함께 부인당해야 할 양비론적 대립의 길이었다. 왜냐하면 김방경 역시도 섬사람들과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외래 장소로서 그 섬과 섬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 권력자였기

33) 이상섭, 「너와 나의 천국은 가능한가」, 『신동아』, 동아일보사, 1976.7; 권오현, 「1970년대 소설의 알레고리 기법 연구-최인훈의 『태풍』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대비를 중심으로-」, 『語文學』 90, 한국어문학회, 2005, 359쪽 참조.

때문이다. / 요컨대, 김통정과 김방경의 대립 갈등상 속에 투영된 이 섬사람들의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두 경향으로 이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인물을 모두 부인하는 전면적 부정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었다.(1권, 197쪽)

“억눌린 백성을 위해 관군과 대항해 싸”(1권, 195쪽)은 김통정도 김통정을 진압하기 위해 물에서 파견된 김방경도 섬의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가짜 구세주”(1권, 196쪽)로 외면받기도 한다. 외래 권력자인 두 장수는 섬을 양분하는 동시에 “어느 쪽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제3의 도민층”(2권, 77쪽)을 낳는다. “제3의 도민층”의 무관심·외면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인 『신화를 삼킨 섬』은, 낙원을 외부(물)가 섬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낙원은 물의 의지에 따라 섬을 대립적으로 양분함으로써 물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인식된다.<sup>34)</sup>

섬사람들의 외면·무관심에 저항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은 제중 일보의 문정국 기자다. 그는 문학인과 지식인들에게 “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하기를 요구하면서 ‘망명’을 “전면적 거부와 저항”(2권, 67쪽)으로 설명한다. 신군부는 “계엄사태 속에서도 육지부의 안정과 평화를 단념하고 행렬의 남하를 방치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오히려 그 혼란과 무질서 상황을 조장하고 행렬의 위험한 폭발까지 유도하려는 의도”(2권, 114-115쪽)를 지니고 있는데, 물의 상황에 상응하여 섬의 대립 양상 또한 더욱 격화된다. 텍스트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합동위령제에서의 유골 탈취와 4·3항쟁의 희생 원혼 숫자를 둘러싼 격돌은 대립의 최고조에 해당한다. 대립적 양분을 통한 장악이라는 전략이 섬을 지배할 때, 섬은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때 ‘망명’은, 희생자를 양산할 “선택적 갈등”이

34) “한 국가나 역사의 이념은, 실은 그 권력과 이념의 상술은 항상 내일への 꿈을 내세워 오늘의 탐과 희생을 요구하고, 그 꿈과 희생의 노래 목록 속에 오늘 자신의 성취를 이뤄가지만, 오늘의 자리가 없는 인민의 꿈은 언제까지나 그 성취가 내일로 내일로 다시 연기되어가는 불가항력 같은 마술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지요. 국가의 본질이 그렇고 이 섬의 운명이 그럴진대 어느 누가 친체제 반체제 혹은 친정권 반정권 어느 쪽에 서느냐는 결국 별 뜻이 없는 거겠지요”(2권, 78쪽)라는 송일의 설명 또한 두 장수와 낙원을 매개하는 데 이바지한다.

아니라 “양비론적 대답”을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3 도민층의 성격은 신화나 거대담론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금옥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분명하게 입을 수가 없”(2권, 93쪽)는 추만우는 정요선에게 금옥의 신궁을 치러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만, 정요선은 추만우에게 그 질문을 되돌려준다. 추만우와 금옥의 결합은 되돌아온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2권, 187쪽)의 형식을 띤다.

정요선·고종민이 탐색하는 대상  $a$  즉 ‘역사 씻기’에 대한 섬사람들의 무관심의 정체는, 섬이 이미 지니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신화적 과거를 창출하는 사후적 산물, 외부의 폭력적 개입과 도구적 낙원에 대한 인식과 저항이라는 잉여효과, 섬의 대립적 양분을 조장하는 상대적 낙원에 대해 사후에 형성된 적극적인 저항의 담론 방식 즉 히스테리 담론의 한 방식인 셈이다.<sup>35)</sup>

그러나 히스테리 담론의 성격을 지닌 이 대상  $a$ 는, 대립적 양분이라는 물의 전략에 의존하거나 물의 전략을 주체적으로 기획·승인하는 경향 또한 보인다.<sup>36)</sup> 이는 문정국과 이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정국은 ‘망명’을 추구하면서 그 근거를 송일의 저서 『국가와 시의 충돌』에서 찾는다. “국가나 교회 제도보다 시어의 본질을 탐색”하려는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문정국은 “권력의 태생적 폭력성을 반정권 논리의 근거로 상대화”(2권, 74쪽)하는 오독을 감행한다. 이로 인해, 문정국의 ‘망명’은 대립적 양분 전략 자체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군부세력의 불법적 전횡에 대한 전면적 저항”(2권, 68쪽)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송일은, “전면적 저항”이 선택적 갈등의 자장 안에서 구체화될 때 그것은 힘의 지배자에 대한 추구<sup>37)</sup>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문정국 또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동시에 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극적인 현실대응은 선택적 갈등의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sup>38)</sup> 이는, 현존하는 권력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는 이성의 교지<sup>39)</sup>가

35)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9, 148쪽 참조.

36) 라깡은 이를 히스테리 담론의 아이러니한 측면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책, 118쪽 참조.

37) loc.cit, 참조.

38) 이런 분석과 더불어, 송일을 “객관적”, “중립적”, “본질적”, “철학적”, “중용적”, “초월적”(2권, 75쪽) 성향의 인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송일은 분석가의 담론의 담당자로 이해할 수 있다.

아니라 물의 전략을 차용한 물에 대한 저항이다.<sup>40)</sup>

여기서 좀더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제주도청 문화진흥과의 이과장이다. 그는 “조직인과 사인 사이의 위험한 불화감”(2권, 116쪽)을 느끼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큰집(‘역사 씻기기’ 사업의 주체인 비공식 정부조직-인용자) 사람들 손발 노릇”(2권, 26쪽)이 아니라 물의 전략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과장은 이후로도 이따금 그 주재관 부재중에 (그는 여전히 부재중인 때가 대부분이었다. (중략) 문서 담당의 요청이 있으면 별 거리낌 없이 어물쩍 서명을 대신해준 일이 잦았고, 그래도 늘 뒷 말썹 안 생기고 넘어가는 걸 알고 난 뒤부터 그 노릇이 제법 자신의 일처럼 익숙한 느낌까지 들어온 것이었다.(2권, 111~112쪽)

이과장은 결국 그 명령서 수령 결재 난에 자신의 ‘이’자 서명을 써넣고 말했다. (중략) 무엇보다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한 대국적 결단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중략) 마치 자신에 대한 명령서를 자신이 만들어 들고 나온 듯한 기분으로 도청으로 돌아온 이과장은 (중략) 그 명령의 효율적인 수행계획을 짜내는 일에 골몰했다.(2권, 119~120쪽)

이과장이 작은집에 들릴 때마다 주재관은 항상 부재중이다. 주재관과 이과장의 서명이 유사한 것을 알게 된 문서 담당자의 부탁을 계기로, 그는 부재중인 주재관의 결재 서명을 가끔 대신하게 된다. “주재관의 일이란 것도 그 전통상의 명령과 보고의 수발 목록에 결재서명을 하는 것이 전부인”(2권, 109쪽) 점을 감안하면, 이과장은 곧바로 주재관의 역할 전체를 하고 있는 셈이며 그 또한 이 역할에 “자신의 일처럼 익숙한 느낌”까지 느낀다. 급기야는 “전국 계엄의 계기나 구실을 찾고 있는”(2권, 115쪽) “심각한 내용을 담”(2권, 116쪽)은 전통 명령문에도 “대국적 결단”으로 서명을 한다. 결단의 주체는 부재하는 주재관이 아니라 서명을 한 이과장이다. 그는 조직의 손발인 “자신에 대한 명령서”를 기획하고 결재하는 ‘부재하는 주재관’이다.

39) H. 마르쿠제, 박병진 옮김,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6, 35쪽 참조.

40) 이는 ‘역사 씻기기’의 도구인 굵이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고할 것.

그가 소문의 수신자가 아니라 송신자라는 데서도 “부재하는 주재관”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섬에 대한 물의 영향력 강조와는 무관하게, 이 텍스트에서 물이 실제로 섬에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섬은 계속 물의 상황을 주시하고 소문을 통해 확인·확산한다. 이때 소문은 물의 힘을 형성하고 증명하는 유력한 방식이다.<sup>41)</sup> 그런데 소문의 송신자는 물이 아니라 이과장이다.

“이과장이란 사람은 지금 고행을 통해 그 그림자 속의 증인의 실체를 기다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은 아직 실체가 허약하고 희미한 단계라서 고행의 관심과 입을 통해 활발한 소문의 영양소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중략) 그 생존자는 지금 그렇게 한창 소문의 바람을 먹고 실체를 갖춰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2권, 80쪽)

분석가 담론의 생산자인 송일은, 한라산 유골 현장의 새 증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전하는 고종민에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송일에 따르면, 청죽회의 증인에 맞서는 작은당집의 새 증인은 실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소문을 통해 실체를 형성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소문을 생산한 사람은 이과장인데, 이 소문을 송일에게 전하는 고종민은 소문 확산에 비의도적으로 참여한 셈이 된다. 이 텍스트에서 물의 영향력은 소문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 소문은 물이 아니라 섬 내부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 즉, 섬에 대한 물의 장악력은 섬 내부에서부터 구축되고 형성된 것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다.

물은 가시적이고 일방적인 폭력과 타자화의 방식으로만 섬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물은 섬에 집단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섬에 의지해 폭력적 실체를 구축하고 구비해가기도 한다. 섬에 대한 물의 절대적 장악력과 섬 내부의 물 지향성이 서로를 순환적으로 고양시키는 과정을 통해 섬의 타자화는 실현되고 있다. 이과장은 “부재하는 주재관”인 동시에 “비운과 비극이 이섬을 피해가주기를 은근히

41) 소문은 중앙에서 주변을 향하는 일방향성을 띠면서 주변으로 하여금 중앙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로컬리티 인문학』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0, 228~231쪽 참조)

바”(2권, 117쪽)란다는 점, 문정국은 망명을 주장하면서도 “선택적 갈등”을 한다는 점, 고종민은 제주와 “같은 운명의 굴레”(1권, 178쪽)를 느끼면서도 비의도적으로 조직의 “손발 노릇”을 한다는 점, 제3도민층을 대표하는 섬심방은 섬을 탈출하려고 하거나 섬 탈출에 동의·방조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결국 《신화를 삼킨 섬》의 대상  $a$ 는 제3도민층의 무관심이 아니라 물의 전략과 이에 대한 저항이 관계 맺고 혼호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 2) 로컬의 상호주체적 유대의식

이러한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성향들의 중첩과 혼호는 국가 권력의 장악력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저항은 국가 권력<sup>42)</sup>의 ‘역사 씻기기’를 모방하여 그 의도를 뒤집는 방식을 취한다. 국가 권력은 굶을 통해 집단 희생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지만, 섬은 굶을 통해 집단 희생의 피해자 사연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체화함으로써 이에 저항한다.

국가 권력은 대립적 양분을 조장하고 획책하려 하지만, “내세와 현세, 이승과 저승 간에도 시공의 단절이 사라진 동시적 공간 속에 신령들과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1권, 67쪽)지는 굶은 대립적인 것들의 공존과 유대를 형성한다. 그러면서도, “망자는 그간의 한을 풀고 편안한 저승길을, 생자는 본래의 평상심으로 돌아가 이승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2권, 169쪽)게 한다. 공존과 유대의 장 내에서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굶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 대립적 양분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저항적 면모의 강조와 맞닿는 것이다. 청죽회와 한얼회는 피해자의 통계숫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굶은 “망자의 깊은 포한”이 “무녀의 슬픔”을 거쳐 “장중인 모두의 슬픔”(2권, 167쪽)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굶은, 통계숫자 속에 은폐되어 지워져버린 개별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연을 찾아내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동질성을

42) 이 절에서는 물이라는 단어 대신 국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절의 서술은, 물의 로컬들 또한 국가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느끼는 사람들을 “공동운명체로서의 일체감”(1권, 165쪽)으로 묶어낸다. 소통, 지금·여기, 구체적 기억을 통한 공동운명체의 동질성은 굳이 국가 권력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자질이다.

「이어도」에서 볼 수 있었던 공동운명체 의식의 폐쇄성과 역타자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는 『신화를 삼킨 섬』의 말미에 마련되어 있다.

무언지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야 할 말을 너무 늦게 들은 것 같은 덤덤한 느낌 속에 그 소록도 킁킁한 만령당 내벽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많은 위패열이 눈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동안 줄곧 그의 속을 부엌에 떠돌고 있던 그 뿌리를 알 수 없던 막연한 불안감과 의혹의 안개가 걷히고 그의 가슴속 어디로부터지 서서히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2권, 202쪽)

금옥은 섬 탈출을 포기하고 추만우와 결합함으로써 섬의 집단 희생 흔적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힘들고 무서운”(2권, 102쪽) 무당의 운명을 수용한다. 금옥의 신굿날 유정남과 정요선은 섬을 떠나는데, 정요선은 배에서 내리면 유정남과 헤어지리라 결심한다. 그러나 정요선은 유정남으로부터 소록도의 만령당 혼령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유정남을 처음으로 “어머니”(2권, 202쪽)라 부르며 동행을 결심하게 된다. “우리 엄니가 진짜 심방이 아니라면 나도 얼마나 좋으리구 우”(1권, 33쪽) 하며 어머니와 섬을 부정했던 금옥이 공동운명체의식을 수용했듯, 정요선 또한 집단 희생의 피해자인 아버지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와 소록도의 자신의 공동운명체의식을 인식하게 된다. 고종민 또한 이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집단 희생의 피해자로 망명을 감행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섬 계엄령 사태를 겪어볼 결심을 한다. 각 인물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겪은 집단 희생의 흔적을 기억하고 체화하려 한다. 찾아내고 기억해야 할 흔적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각 로컬은 기억해야 할 집단 희생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고 그 흔적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여러 인물들을 묶어내고 있다.

금옥이 정요선에게 자신의 신굿을 구경하기를 요청하는 것도, 배 위의 정요선이 금옥과 종민을 떠올리며 마음이 애뜻하고 무거워지는 것도, 종민이 정요선에게

작별인사와 함께 자신의 결심을 전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집단 희생을 겪은 공동운명체간의 유대의식의 소산이다. 이 때 합동위령제는 공동운명체간의 유대의식을 학습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유골 탈취를 기회로 대부분의 군중들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라지고 합동위령제의 굿마당을 지키는 사람은 등장인물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흥겨운 연물 가락 속에서 그들끼리 신나는 굿칭 춤판을 벌인다. 굿과 춤판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한 장, 즉 그들 간의 상호주체적 유대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

유대의식은 『당신들의 천국』의 알레고리적 독법이 이 텍스트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내(고종민-인용자)가 이 섬의 숙명을 느끼고 이 섬과 이 나라의 일을 알려고 하는 대학 물먹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다 건너 나라에서도 여전히 같은 운명의 굴레 속에 배고프고 억눌리며 쫓겨 살아온 비슷한 삶의 내력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 제주도의 역사의 숙명을 이 나라 전체의 것으로 말한 것은 단순히 지역의 확대에서가 아니라, (중략) 제주 섬 역사가 곧 바다 건너 전라도의 역사나 이 나라 전체의 역사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겠지요.”(1권, 178-179쪽)

제주의 역사를 단순한 “지역의 확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 혹은 나라 전체와 맥이 닿아 있는 역사로 보기를 요구하는 것은, 독자가 제주를 한국 사회 전체를 환유하는 알레고리적 공간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각 로컬의 역사는 다른 로컬이나 국가 권력 전체의 역사와 연동되지만, 독자는 각자의 로컬에서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같은 운명의 굴레 속에 있는 다른 로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들의 천국』의 독자와는 달리, 이 텍스트의 독자는 물의 사람들에서 섬사람들로 변모함으로써 타자화의 주체라는 불편한 위치를 벗어나려 할 필요가 없다. 고종민과 정요선이 자신의 섬(소록도와 일본)에서 인정하고 체화해야 할 과거를 만나듯이, 독자들은 각자의 공동운명체 혹은 로컬이 지니고 있는 집단 희생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체화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등장인물들의 궤적을 따라 동일화 현상을 경험한 독자들은, 자신의 로컬과 제주를 동일시할 필요가 없이 로컬들 간의 상호주체적 유대의식에 대해 인식하면 되는 셈이다.



## 5. 결론

이 글은, 로컬리티는 장소정체성과 외부 영향력의 교호적 관계 양상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로컬의 낙원의식은, 미래를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현재를 통제하는 유력한 도구 중 하나로, 로컬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힘들이 투쟁하는 장이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로컬의 낙원의식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 주체 즉 시선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섬은 고립과 교류라는 양면성의 공간이다. 섬은, 정서적으로는 고립 공간이면서 생존의 지속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외부 공간(물)과의 교류에 상당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세 소설은, 섬이라는 로컬의 낙원의식에 대해 무지 상태에 있는 섬 외부인이 섬을 방문함으로써 로컬의 낙원의식을 인지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독자와의 관계라는 소설 외적 측면에서 볼 때, 로컬의 낙원의식은 로컬 스스로가 인지하고 설명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로컬 외부인에 의해 탐색되고 인지되는 어떤 것 즉 타자로서의 대상  $a$ 이다. 이청준의 세 소설들은, 대상  $a$ 의 정체나 내용보다는, 대상  $a$ 가 외부 세계와 관계맺는 각종 구도 즉 관계 구축적 차원에서 대상  $a$ 의 도구적 기능을 주의깊게 탐색하고 있다. 이 글 또한 로컬의 낙원의식 위에서 펼쳐지는 투쟁의 각종 양상 즉 대상  $a$ 가 외부 세계와 맺는 다양한 관계 양상을 일반화·분류화하려 하였다.

이청준의 세 소설은, 낙원의식에서 발현되는 투쟁의 세 양상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이어도』의 낙원의식은 섬 제주도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설에 기반한다. 로컬의 자생적 낙원은 섬 내부인의 고통을 위무하는 동시에 그들을 섬에 고정시키는 양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섬 외부인은 로컬의 낙원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낙원의식이 로컬에 행사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다. 외부인이 발견한 대상  $a$ 는 로컬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별하면서 외부인을 역타자화하는 기제인 폐쇄적인 장소정체성이다. 로컬의 자생적 낙원의식은, 폐쇄적인 자기규정과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부 세계·외부인이 로컬의 낙원을 환상과 신비, 광기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한다. 이 때 로컬은 외부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타자가 될 뿐이다.

반면 『당신들의 천국』은, 외부 세계·외부인이 폭력적인 형태로 혹은 자발적 동의를 형태로 요구한 대타적·상대적 낙원의식을 다룬다. 이 텍스트의 섬 소록도는 훼손된 신체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재해석된 후 공간적으로 재배치된(추방과 단절) 결과이기 때문이다. 외부인은 물의 폭력이 빚어낸 섬의 대타적 낙원을 이해하고 공유하려 노력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정체성 은폐와 상징 조작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경계인이기도 한 외부인의 이 전략은 알레고리적 독법과 결합하여, 오히려 물의 각 로컬과 섬의 동일화, 그리고 로컬의 장소정체성 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의도의 선악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부 세계·외부인에 의해 기획되고 형성된 로컬의 낙원의식이 로컬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로컬 장소정체성의 생성·발현 가능성은 근원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때의 로컬과 외부세계·외부인은 공생의 기본 조건인 사랑·신뢰 등을 성찰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은, 낙원의식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대신, 대타적·상대적 낙원의식이라는 장에서 펼쳐지는 투쟁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문제를 직접 겨냥한다. 『신화를 삼킨 섬』의 로컬(섬)은 물(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일 색채의 공간이 아니다. 외부 폭력의 수행과 이에 대한 저항은 개별 인물들이 각각 담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인물 속에서 양가적으로 공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텍스트의 로컬(섬)은 대립적인 두 성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혼재하고 충돌하는 장 그 자체이다. 또한, 외부인과 독자는 섬이 집단 희생의 흔적을 기억하기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로컬이 체험한 집단 희생의 흔적을 기억하고 체화하려는 의지를 구비하게 된다. 각 로컬들은 각자의 체험을 기억하고 있는 공동운명체간의 정서적·심리적 유대의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작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에 비해 효율성은 미흡하지만, 이 유대의식을 각 로컬의 독자성을 담보하면서도 상호주체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신화를 삼킨 섬』은 「이어도」와 『당신들의 천국』의 상이한 낙원의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면서 각 로컬의 정체성과 외부공간의 관계망을

상호주체적이고 중층적으로 파악한다.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난 로컬리티는, 섬 내부인이 외부인의 질문과 탐색에 대답하는 과정, 섬의 정체성이 상위공간이나 타 로컬과 간주체적으로 관계맺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형성되고 설명된다. 즉, 각종 기획력의 작용으로 자연화된 국가 권력과는 달리, 이청준의 로컬은 국가 권력의 질문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재발견되고 가치 매겨진 사후적 산물로서의 공간이다. 이처럼 관계성으로서의 로컬리티에 주목한 이청준의 세 소설은 다음과 같은 의식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로컬의 자생적 낙원의식이 로컬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장소정체성으로 신비화될 경우엔 배타성과 역차별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 세계가 기획하고 투여한 로컬의 낙원의식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립적 관계를 해소할 없다는 것이 『이어도』와 『당신들의 천국』이 보여주는 바다. 이 두 소설이 다루는 로컬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색채의 단일 공간이라면, 『신화를 삼킨 섬』의 로컬은 혼종성, 다양성의 공간이다. 『신화를 삼킨 섬』은, 이 소설이 표현한 로컬과 외부 세계의 이상적인 관계를 ‘지금 여기’의 로컬이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낙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로컬리티, 낙원, 대상  $a$ , 장소정체성, 저항, 유대의식

### <참고문헌>

#### 1. 자료

- 이청준, 이청준 문학전집 장편소설 4 『당신들의 천국』, 도서출판 열림원, 2000.  
\_\_\_\_\_,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 8 『이어도』, 도서출판 열림원, 1998.  
\_\_\_\_\_, 『신화를 삼킨 섬』 1·2, 열림원, 2003.

#### 2. 논저

- 권오현, 「1970년대 소설의 알레고리 기법 연구-최인훈의 『태풍』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대비를 중심으로-」, 『語文學』 90, 한국어문학회, 2005.  
김상환, 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0.  
김 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김윤식,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김인경,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26, 한성어문학회, 2007.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10,  
박미란, 「이어도, 탈존하는 실재의 섬-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전남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9.  
\_\_\_\_\_,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백지은,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식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한국사업 <로컬리티의 인문학> 아젠다, 2007.11.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10,

- 이상섭, 「너와 나의 천국은 가능한가」, 『신동아』, 동아일보사, 1976. 7.
- 이상우,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 장수익, 「한국 관념소설의 계보」, 『1960년대 문학연구』, 예화, 1993
- 조명기, 「중심/주변 공간 위계의 내면화 기제」, 『로컬리티 인문학』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0.
- 홍용기, 「이청준 소설의 공간성 연구-‘섬’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5.
- H. 마르쿠제, 박병진 옮김,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6, 35쪽 참조.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 Sean Homer,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9.

[Abstract]

## A Study on Paradise-cognition and Locality in Lee Cheong-Jun' novels

-Focused on 『I-eo-do(이어도)』, 『Yours' Paradise(당신들의 천국)』  
and 『An Island Swallowed Myths(신화를 삼킨 섬)』

Cho myungki

Lee Cheong-Jun shows various characteristics of locality surrounding paradise-cognition and the aspects of change in cognition as an author through 『I-eo-do(이어도)』, 『Yours' Paradise(당신들의 천국)』 and 『An Island Swallowed Myths(신화를 삼킨 섬)』.

『I-eo-do』 displays differentiation by spontaneous paradise-cognition and the process of being otherized and otherizing. 『Yours' Paradise』 focuses on the reason why paradise which is not spontaneous, but generated by other existence is not able to coexist with the external forces. Concealment of identity, control of symbols and allegorical way of reading cause identification between each local of the land and the island, and extinction of objet *a*. 『An Island Swallowed Myths』 even more focuses on characteristics of objet *a* which is relative and generated by other existence, giving up researching paradise-cognition. Incomprehensible objet *a* of the island means the phenomenon itself where intentional consequence by state power, violence and oppositional bisection exist together. Moreover, people from the outside and readers possess the will to remember and embody the trace of a group victimization which was experienced by their own locals by learning the process of the island remembering the trace of its own. Each local is connected

by emotional and mental bonds among the communities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which remember the experience of each.

Lee Cheong-Jun's local and locality are the space as ex post facto product which is rediscovered and valued by questioning to state power and cognizing about violence.

【Key words】 : locality, paradise, objet *a*, place-identity, resistance, bonds

---

---

조명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전임연구원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04

전자우편: ftw123@pusan.ac.kr

---

---

이 논문은 2010년 5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5월 24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